동방 약사여래 바라보는 도량

바람도 머문 곳, 암자

③ 전남 구례 사성암(四聖庵)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중생은 아프다. 아프니까 중생이다. 아픈 중생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아픔에서 벗어나는 일일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성불하여 정토에 나는 것이다. 하지만 중생에게 성불과 정토는 어려운 문제다. 정토를 구현하기 위한 성불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중생에게는 쉽지 않은 일대사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 쉽지 않은 길에는 여래가 한 분 계시다. 약사여래다. 동방의 정유리세계에 계시는 약사유리광여래다. 모든 여래가 중생을 위해 존재하지만 특히 약사여래는 중생의 질병과 재앙을 걱정하는 여래다. 약사여래의 가피를 입는다면 정토로 가는 길이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을까. 질병과 재앙으로 시작되는 번뇌만큼은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길을 시작할 수 있는 도량이 있다. 동방의 약사여래가 바라보고 있는 도량, 전남 구례 사성암이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36~37번 사찰의 순례여정

B4 책세상
정여 스님의 〈머무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

B5 문화
송광사 근현대 자료 특별전

B6 학술
종교시장화 가속, 극복하는 방안은